

‘원한 갚으려 태어난 자식’ 이야기를 통해 본 역압받는 부모들과 그 해방의 문제

박재인*

<차 례>

1. 서론
2. ‘원한 갚으려 태어난 자식’ 이야기 유형과 경계심 및 과잉동일시의 문제
3. <커서도 어머니 젖 빠는 아들> 속 어머니의 탈주와 ‘혐오’ 감정
4.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원한 갚으려 태어난 자식’ 이야기들에 드러난 부모의 특징을 분석하여 자식에 대한 날카로운 경계심 및 과잉된 동일시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것은 이야기에서 젠더적 특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데 작품 속 부모의 역할이나 전승주체의 성별과도 관련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대할 때의 고민과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우리 사회가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강요했던 책임과 의무들로 양육자에 대한 역압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원한 갚으려 태어난 자식’ 중에서는 이 사회가 요구하는 부모의 역할에서 탈주하는 이야기도 존재했다. <커서도 어머니 젖 빠는 아들>은 모성을 여성의 본능으로 간주하며 숭고한 어머니의 자비와 희생을 강요했던 ‘모성 역압’의 문제를 다루면서, 동시에 자식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허용하는 구비설화이다. ‘원수자식’이라는 문학적 장치를 통해 인간의 원초적 감정과 그 자연성의 해방구를 탐색할 수 있는데, 이는 문명사회가 허용하지 않는 인간 실존의 원초적 감정들을 노골적으로 그려내면서 우리를 죄의식이라는 지옥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구비설화의 문학적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다.

* 건국대학교 HK연구교수

주제어 원한 갚으려 태어난 자식 이야기 유형, 구비설화 <커서도 어머니 젖 빠는 아들>, 구비설화의 전대적 특징, 억압된 모성, 자식에 대한 혐오의 감정, 감정 치유

1. 서론

이 글은 ‘원한 갚으려 태어난 자식’ 이야기들을 통하여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고민과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사회가 강요해왔던 부모의 책임과 의무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인간의 원초적 감정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구비설화는 인간의 삶과 정신을 압축하여 의미심장하게 담아내는 문학으로 인간 존재의 생생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¹⁾ 그 상상력에는 문명의 억압으로 가려진 인간의 본연적 특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기존의 가치들을 전복시키는 사유들을 허용하면서 인간의 자연성을 해방시키는 통로가 숨어 있기도 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구비설화의 특성을 기반으로, 부모들에게 내려진 억압을 인간의 자연성을 억압해온 문명의 틀로 파악하고 그 해방구로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문제에 대하여 구비설화의 문학적 상상력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주목한 설화는 ‘원한 갚으려 태어난 자식’ 이야기이다.²⁾

-
- 1) 신동훈, 「구술소통능력과 구비문학 : 설화의 인지체계와 의미구조를 중심으로」, 『화법연구』 33, 한국화법학회, 2016, 71쪽.
- 2) 그간 이 이야기들은 김치(金緻) 혹은 흥덕 현감 관련 설화를 비롯하여 <차사본풀이>, <짐가제곳>과의 관련성으로 연구되었고, ‘변신담’으로 분류되어 인간계와 비인간계의 대결 문제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강진옥, 변신설화에 나타난 세계인식양상(Ⅰ), 『이화어문논집』 10, 이화어문학회, 1989, 327~349쪽; 강진옥, 변신설화에서의 ‘정체확인’과 그 의미, 『진단학보』 73, 진단학회, 1992, 165~185쪽.) 또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문학치료학적 해석이 이루어진 성과도 있었다. (하은하, 원수가 자식이 된 이야기의 이본양상과 문학치료적 의미, 『문학치료연구』 3, 한국문학치료학회, 2005, 111~136쪽; 하은하,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의 인물 성격>과 편집증적 부모서사, 『한국고전연구』 2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31~61쪽; 하은하, 원한 갚으려 태어난 자식 이야기에 나타난 부모의 태도와 그 의미, 『문

‘원한 갚으려 태어난 자식’이라는 화소를 공유하는 이야기들은 ‘짐승 원귀-자식으로 환생-복수’라는 공통적인 서사구조를 보인다. 이에 대하여 강진옥은 변신설화의 한 유형으로 보면서, 비인간계 우위형과 인간계 우위형으로 이야기를 분류하였다. 원한을 가진 짐승에게 인간이 패배하는 결말을 “끌려들기” 유형으로 보았고, 인간이 둔갑한 짐승의 정체를 밝히거나 퇴치해버리는 결말을 “물리치기” 유형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비인간계 우위형은 “인간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떠한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향유층의 운명론적 사고”로 해석하였고, 인간계 우위형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떠한 일을 이해할 뿐 아니라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인간의 삶의 고통을 관장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로 생각하는 관념”³⁾으로 해석하였다. 동물이 인간으로 ‘변신’한다는 서사적 장치와 이야기 흐름을 비인간계와 인간의 대결 구도로 보고 향유층의 사고방식을 파악한 것이다.

한편, 이 이야기군을 인간 삶의 문제로 파악한 논의로 하은하의 연구가 있다. 그는 “(1) 자식이라 확신하며 사랑하기, (2) 원수라고 의심하고 밀치기, (3) 원수라고 확신하며 밀치기, (4) 자식임을 의심하지만 사랑하기” 등 작품 속 부모의 입장과 대응방식을 중심으로 이야기들을 분류했다. 그리고 1유형을 원수 같은 자식이 태어나는 배경에는 ‘부모와의 원한’이 들어 있고 그것을 모르는 부모를 그려낸 이야기라고 하였고, 2유형은 자식에 대한 애정과 증오가 뒤섞이며 그 불안감을 나타낸 이야기로 해석했다. 3유형은 자녀들을 경쟁이나 감시의 대상으로 보며, 자신에게 도전하는 자녀를 일찌감치 경계하고 제거하려는 부모의 이야기로 해석했다. 마지막 4유형은 자녀는 부모를 원망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이해하는 부모들을 그려내면서, ‘효자’란 원망이 다 풀린 지점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학치료연구』 23, 한국문학치료학회, 2012, 258~295쪽.)

3) 강진옥(1989), 위의 논문, 343쪽.

논하였다.⁴⁾

선행연구의 관점을 종합하면 이 이야기들은 크게 (1) ‘원한 갚으려 태어난 자식’의 실체가 드러나고 복수가 실행되는 이야기와 (2) ‘원한 갚으려 태어난 자식’의 실체가 드러나고 퇴치하는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강진옥의 분류법에 따르면서도, 하은하의 관점처럼 자식을 원수로 바라보는 부모의 입장과 태도에 주목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논문은 작품 텍스트에 드러나는 부모들의 고민들을 세분화하여 그 입장에 따른 원형적 문제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각 이야기들은 분명 ‘원한 갚으려 태어난 자식’ 문제를 바라보는 부모들의 특정한 입장들을 대변하고 있는데, 그것은 젠더적 차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파악되는 부모의 문제는 이 시대의 어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원형적인 부모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 사회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강요했던 책임과 의무들, 즉 양육자에 대한 억압들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함께, 과도한 책임과 의무들이 낳은 문제들을 이 이야기 속 부모들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연구의 기본 목표이다.

또한 이 연구는 2장과의 연결선상에서 모성 문제와 혐오의 감정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원한 갚으려 태어난 자식’ 이야기들에 주목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어머니’로서 부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커서도 젓 달라는 거미 아들>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서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감정의 문제를 함께 논하려고 한다. 모성을 여성의 본능으로 간주하며 숭고한 어머니의 자비와 희생을 강요한 문제들을 비판하고, 인간의 원초적 감정을 살펴보면 그 자연성의 해방구를 구비설화 속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4) 하은하(2012), 앞의 논문, 258~295쪽.

2. ‘원한 갚으려 태어난 자식’ 이야기 유형과

경계심 및 과잉동일시의 문제

원한 갚으려 태어난 자식 이야기는 크게 (1) 복수형 : ‘원한 갚으려 태어난 자식’의 실체가 드러나고 복수가 실행되는 이야기와 (2) 퇴치형 : ‘원한 갚으려 태어난 자식’의 실체가 드러나고 퇴치하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복수담 유형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세 가지 형태의 이야기들이 포함된다. 원수자식⁵⁾이 일찍 죽어 복수하는 이야기와 원수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야기, 그리고 부모가 이인의 충고를 듣지 않고 보복을 면치 못하는 이야기이다.

원수자식이 일찍 죽어 복수하는 이야기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김치(金緻) 관련 설화를 포함하여, <홍덕현감설화>, <진자장굿>, <차사본풀이> 등과 유사한 형태의 이야기들이다. 구술로 전승되는 옛이야기로 한정하자면,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자료 가운데 이 유형에 속한 작품으로는 <벌레를 함부로 죽인 탓으로 아들 죽게 한 부인>⁶⁾과 <일찍 죽어 원수 갚은 자식>⁷⁾이 있다. 후자의 이야기가 <홍덕현감설화>, <진자

5) 이 글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집중하는 논의의 편의상 원한 갚으려 태어난 자식 존재를 ‘원수자식’이라고 명명한다.

6) <벌레를 함부로 죽인 탓으로 아들 죽게 한 부인>은 『한국구비문학대계』에 1편 가량 수록되어 있다. “①어떤 큰 애기가 밭을 매다가 깨벌레가 나오는 족족 다 죽였다. 그 큰 애기가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는데 딱 죽는 것이었다. ②그리고 둘째를 낳으면 또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었다. 큰 애기는 하도 원통하여 아이가 죽을 때마다 무덤에 와서 울었다. ③다섯째는 요행히 말할 무렵까지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기 직전에 큰애기에게 “네 씹으로 내가 다섯 번 나왔다. 그 때 죽은 깨벌레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런 것이다. 그리고 내 무덤에 와서 울지 마라, 우는 소리 듣기 싫다”라고 말하더니 죽었다.” (김갑례(여, 75), 특량면 설화 15 <벌레를 함부로 죽인 탓으로 아들 죽게 한 부인>, 『한국구비문학대계』 6-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566~567쪽.)

7) <일찍 죽어 원수 갚은 자식>은 『문학치료 서사사전』에서 붙인 제목이며,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약 4편 수록되어 있다. “①어떤 백성이 한낱한시에 자식 삼형제가 죽었

장굿>, <차사본풀이>와 유사한 서사구조로 전개되는 작품인데, 여기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섞여 버린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이인들의 행보가 두드러진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작품들에서는 대체로 그 이인이 ‘강감찬’으로 나타난다. 이 작품들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에 집중하자면, 부모의 과오와 자식의 불행, 그리고 그로 인한 부모의 고통이 이야기의 핵심이 되며, 부모의 지난날 잘못이 결국 자식의 불행으로 이어지는 인과응보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원수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방식으로 복수하는 이야기로는 <구렁이의 보복>⁸⁾과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⁹⁾를 들 수 있

다면서 강감찬 원님에게 원통함을 호소하였다. ②강감찬 원님은 염라대왕을 불러 어찌 자식 삼형제를 한낱한시에 잡아 갔냐고 따졌다. ③그러자 염라대왕이 그 삼형제는 예전에 장사치였는데 지금 부모가 돈을 빼앗은 뒤 죽였고 그렇게 죽자 복수하기 위하여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④그 말을 들은 강감찬 원님은 자식 죽었다고 하소연했던 백성의 집을 수색하였다. ⑤과연 그 집에서 예전에 죽은 장사치들의 시체가 썩지도 않고 발견되었다. ⑥강감찬 원님은 과거의 죄를 물어 백성을 벌하였다.(정운채 외, 『문학치료 서사사전』 3, 도서출판 문학과 치료, 2009, 2351쪽; 김만기(남, 88), 정주시 설화14 <명관 강감찬>, 『한국구비문학대계』 5-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73~75쪽; 서보익(남, 76), 태인면 설화8 <유기장수의 한을 풀어준 강감찬>, 『한국구비문학대계』 5-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69~71쪽; 김한식(남, 82), 미원면 설화14 <염라대왕을 찾아 온 강감찬>, 『한국구비문학대계』 3-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731~734쪽; 윤운대(남, 71), 이서면 설화5 <염라대왕 만난 현풍 광씨>, 『한국구비문학대계』 5-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823~828쪽.)

- 8) <구렁이의 복수>는 강진옥의 논문에 제시된 유형으로 『한국구비문학대계』에 2편 가량 수록되어 있다. 다음의 줄거리는 강진옥 논문을 인용하였다. “①어느 봄철에 어떤 소금장수가 길을 가다가 땡 울음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것을 듣고 그곳에 가보니 구렁이가 땡을 위협하고 있었다. ②소금장수는 아무 말 없이 처음의 자리로 돌아와 가만히 보고 있었더니 어떤 만삭의 부인네가 새참을 이고 가다가 그것을 보고는 구렁이를 쫓아버렸다. ③그 부인은 아들을 낳았지만 여덟 살이 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금장수가 다시 그 마을에 갔을 때 아이가 입을 열어 엄마에게 그를 불러들여 집에 재우라고 했다. 아들이 말하는 것을 본 부인은 너무나 기뻐 소금장수를 극진히 대접했다.④그날 밤에 부인의 고향소리가 나서 소금장수가 창구명으로 들려다 보니 구렁이가 부인을 해친 뒤 소금장수도 죽었다.” (이난자(여), 삼산면 설화 7 <구렁이의 보복(원수 갚으려는 구렁이 새끼)>, 『한국구비문학대계』 6-5, 한국정신문화연구

다. 전자는 강진옥이 비인간계 우위형 이야기로 분류한 자료인데, 그는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특정한 사건 또한 그것에 의해 초래된 어떠한 결과는 인간 자신이 선택할 수 있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비인간계 우위형 이야기의 의미를 분석하였다.¹⁰⁾

원, 1985, 133쪽; 우두남(남), 상북면 설화 14 <여자 오줌을 맞고 득전을 못한 구렁이>, 『한국구비문학대계』 8-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579쪽; 강진옥, 변신설화에 나타난 세계인식양상(1) - 짐승원귀 환생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10, 이화어문학회, 336쪽.)

- 9)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는 『문학치료 서사사전』의 제목으로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약 8편 수록되어 있다. “①허적의 아버지가 절에서 공부할 때, 자꾸 중을 물어가는 이무기를 칼로 쳐 죽이고 불에 태웠다. ②이무기가 불에 타면서 파란 연기가 솟아 허적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허적의 아버지는 좋지 않은 징조라 여겨 삼 년 동안 집에 가지 않았다. ③삼 년 후에 집에 가서 아들은 낳았는데 그 동생 허미수가 찾아와 조카가 뱀의 형상이니 죽여야 한다고 했다. 허적의 아버지는 동생의 말을 믿고 아들을 죽였다. 두 번째 아들도 허미수가 죽여야 한다고 하니 죽였다. ④아버지가 세 번째에는 허적을 낳았는데, 허미수가 이번에도 죽여야 한다고 하니, 아버지는 자식을 세 명이나 죽일 수 없다고 허미수에게 부탁했다. ⑤허미수는 자신이 할 수 없다며 그냥 두었고, 이후 허미수는 형제간에 파적(破籍)을 하고 자신은 허가가 아니라며 반드시 허적이 역적질할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⑥허적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였고 등과해서 영의정까지 지냈으나, 역적이 되어 그 가문이 삼족이 멸하게 되었다. 그리고 허적이 뱀으로 변하여 연못을 파서 죽은 집안사람들을 그 연못에 집어넣고는 그 식구를 모두 잡아먹었다.” (정운채 외, 『문학치료 서사사전』 2, 도서출판 문학과 치료, 2009, 2462쪽; 유정구(남, 71), 이죽면 설화15 <허적(許積)과 허목(許穆)>, 『한국구비문학대계』 1-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663~669쪽; 김진홍(남, 58), 영월읍 설화116 <뱀의 정기를 타고 태어난 허적>, 『한국구비문학대계』 2-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509~512쪽; 엄기복(남, 73), 영월읍 설화187 <허미수(許眉叟)의 지네 퇴치와 허적(許積)의 출생담>, 『한국구비문학대계』 2-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688~690쪽; 이종기(남, 77), 약양면 설화8 <허미수 전설>, 『한국구비문학대계』 8-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472~475쪽; 박동준(남, 73), 외동면 설화7 <허미수 형제와 뱀의 혼령>, 『한국구비문학대계』 7-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52~57쪽; 주병욱(남, 65), 의신면 설화24 <나성대 장군>, 『한국구비문학대계』 6-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670~673쪽; 배동벽(남, 75), 대구시 설화24 <이인(異人) 허미수(1)>, 『한국구비문학대계』 7-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116~117쪽; 배석영(남, 73), 용산면 설화25 <뱀의 정기를 타고난 허적(許積)>, 『한국구비문학대계』 7-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307~309쪽.)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는 허적의 역적 행위를 예측한 허미수의 이인 행보를 그린 작품으로 유명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자식을 자신과 가문을 위협하는 존재,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적인 존재로 여기고, 자식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을 드러내는 이야기로 분석하였다.¹¹⁾ 이 이야기들은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두려움과 경계심을 그대로 드러내며 ‘천륜’이라는 윤리적 잣대와 달리 그 관계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원한 깊으려 태어난 자식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 보복으로 부모가 비극에 빠지는 이야기들이라면, 다음의 이야기들은 퇴치담에 해당한다. 이 유형에는 두 종류의 작품이 있는데, 위와 같은 허미수 설화와 거미아들 설화이다.

먼저, 위의 허미수 이야기의 또 다른 갈래라고 할 수 있는 <낮에 찢려 죽고 자식으로 태어난 구렁이>¹²⁾가 있다. 이 이야기는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와 다른 방향으로 서사가 흘러간다.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수많은 각편들을 서사 유형별로 정리한 『문학치료 서사사전』

10) 강진옥(1989), 앞의 논문, 337쪽.

11) 하은하(2012), 앞의 논문, 31~61쪽.

12) <낮에 찢려 죽고 자식으로 태어난 구렁이>는 『문학치료 서사사전』에 따른 제목이며, 이 이야기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약 2편 수록되어 있다. “①이인이 어느 집 옆을 지나가다가 그 집에서 큰 사고가 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②이인이 집주인을 불러 자기 말대로 하지 않으면 집안에 큰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니 주인이 이인의 말대로 하겠다고 했다. ③이인이 솥을 가져와 마당에 솥불을 피우게 한 다음 주인이 아들 불에 집어넣어 태워버렸다. ④나중에 재를 헤집어보니 그 속에서 부러진 낮 조각이 나왔다. ⑤예전에 주인이 연못에서 물고기를 길렀는데 구렁이가 물고기들을 모두 잡아먹자 낮으로 구렁이를 찢어 죽인 일이 있었다. 그때 죽은 구렁이가 주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아들로 태어났던 것이었다.” (정운채 외, 『문학치료 서사사전』 1, 도서출판 문학과 치료, 2009, 584쪽; 정재철(남, 73), 동북면 설화¹² <박문수의 구렁이 퇴치>, 『한국구비문학대계』 6-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510~511쪽; 이상진(남, 71), 주천면 설화¹² <허미수 대감의 사촌형 관상의 지혜>, 『한국구비문학대계』 2-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780~784쪽.)

에는 두 이야기를 다른 서사로 분류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허미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결국 허적이 역적이 되는 후일담이 분명한 이야기는 전자로, 그리고 아버지가 허미수의 말을 듣고 원수자식을 퇴치하여 구렁이의 복수가 명백히 드러나면서 마무리되는 이야기를 후자로 분류했다. 서사의 흐름도 다를 뿐만 아니라, 후자의 이야기는 허미수와 허적의 인물로 명시되지 않고 이인이 박문수로 등장하는 각편도 존재하며, 무엇보다 원수자식을 태워 죽인 재에서 부러진 낫 조각이 나왔다는 장면이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퇴치담으로 이인의 식견이 강조되어 재빨리 원수자식을 퇴치했다는 안도감이 들면서도, 동시에 원수자식의 사체에서 발견된 부러진 낫 조각으로 그 원한과 복수심이 부각되어 자식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을 합리적 의혹과 적대감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퇴치담에 속하는 <커서도 어머니 젖 빠는 아들>¹³⁾이 있다.

13) 이 이야기는 『문학치료 서사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되었으나 누락된 자료이며, 제목은 그 정리본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문학치료 서사사전』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 6편 가량 수록되어 있다. “①한 여자가 산에 나물 뜯으러 갔다가 평 한 마리가 거미집에 걸린 것을 보고 구해주었다. ②그것을 거미가 지켜보다가 그 혼이 아이로 화해, 여자가 혼인할 때 아들로 태어났다. ③여자는 남편이 죽어 아들을 혼자 키웠는데, 세월이 흘러 어느 정도 자란 아들이 서당에 다녀와서 어머니에게 젖을 달라고 했다. 여자는 다 커서 망측하다고 거절하자 아들은 계속 졸랐다. ④여자는 하는 수 없이 젖을 주었는데, 아들이 어머니의 비까지 빨아 먹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어머니에게 젖을 달라고 하였다. ⑤여자는 잘못하면 죽겠다 싶어 산으로 도망갔다. 그리고 갈에서 상주 옷을 입은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숨겨주어 뒤에 쫓아오는 아들을 피할 수 있었다. ⑥상주가 말하길, 자신은 예전에 당신이 살려준 평인데 오늘 당신이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상주로 화하여 구하러 온 것이라고 하며, 지금 돌아가면 거미 아들이 당신을 녹여 먹으려고 할 테니 어서 도망가라고 하였다. 여자는 상주가 시키는 대로 산을 넘어가 죽지 않고 살았다.” (진능선(여, 97), 대구시 설화49 <구렁이의 원한>, 『한국구비문학대계』 7-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210~214쪽; 이선재(여, 61), 현곡면 설화86 <거미와 학>, 『한국구비문학대계』 7-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245~247쪽; 최복순(남, 50), 하빈면 설화29 <아들로 환생한 거미의 복수>, 『한국구비문학대계』 7-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772~775쪽; 박분준(여, 66), 상동면 설화61 <평의 보은>, 『한국구비문학대계』 8-9, 한국정신문화연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와 달리 부모가 먼저 원수자식의 위협을 알아차리고 도망간다는 특징이 있다. 어머니가 다 커서도 젓을 달라는 아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위기를 감지하며 아들로부터 피신하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 원수자식의 위협을 알게 되어도 그 애착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부모들의 이야기와 다른 모습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자녀의 양육이 부모의 끊임없는 희생으로 이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부모들의 불안감”¹⁴⁾을 나타내는 이야기라고 해석했다.

또 이 이야기는 허미수와 허적 이야기와 같이 원수자식이 탄생되는 과정에서 부모의 행위가 선과 악으로 분명하게 갈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 역시 다른 퇴치담과 마찬가지로 위기에서 구원해주는 ‘이인’이 등장하는데, 이는 또 원수자식이 탄생하게 된 전사(前事)와 관련된다. 이때 도움을 받았던 꿩이 사람으로 화하여, 여인을 원수자식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녀의 살 길을 도모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 이야기는 여인의 행위 자체에 선과 악으로의 판별이 어려우며, 인간사의 복잡한 인연과 같이 여인의 행위가 거미아들에게는 복수심을 야기하는 일이었고 구원자로 화한 꿩에게는 보은을 베푸는 일이 되었던 것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본 ‘원한 갚으려 태어난 자식’ 이야기들은 크게 복수담과 퇴치담으로 구분되고, 그 안에는 각각의 강조점이 다른 작품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자식’을 대하는 부모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젠더적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기도 한다. 그것은 성차를 나타내는 것이기 보다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강요되었던 ‘아버지’와 ‘어머니’

구원, 1983, 1047~1049쪽; 이광휘(남, 70), 달산면 설화6 <거미딸 낳은 여인>, 『한국구비문학대계』 7-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283~284쪽; 김금안(여, 53), 옥종면 설화14 <비둘기의 보은>, 『한국구비문학대계』 8-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787~790쪽.)

14) 하은하(2012), 위의 논문, 283쪽.

라는 젠더적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작품 텍스트에 위험한 자녀에 대한 강한 ‘경계심’ 및 나의 죄가 곧 자녀의 불운으로 이어지는 ‘동일시(identification)’ 문제로 구현되어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구성해 낸 부성과 모성의 원형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다시 말해 이 이야기들은 크게 어머니에게 ‘자식이 원수란?’, 아버지에게 ‘자식이 원수란?’의 차이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원수가 태어난 것이라고 느껴질 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자녀를 대하고 있는 부모들의 이야기”¹⁶⁾이면서도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어려움과 어머니의 어려움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아버지의 위치에서 ‘자식이 원수’라는 문제에 대해서 논하자면,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수 자식은 자식을 두고 자신과 기문을 위협하는 존재 혹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적인 존재로 볼 수 있다. 특히 복수담에서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 이야기 등이 이 문제를 잘 드러낸다. 또 원수자식 퇴치담에서도 허미수 이야기가 포함된 유형 <낮에 찢려 죽고 자식으로 태어난 구렁이>가 그러하다. 자식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마 이 이야기에 붙은 이인의 능력담은 침입자를 알아보는 식견에 해당할 것이다.

또한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는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성찰하게 한다. 허적이라는 자녀를 ‘역적’이라고 설정한 부분, 그리고 그것이 결국 아버지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부성’에 가까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흔히 이야기하는 오이디푸스 신화에서 말하는 부자관계에서 벌어지

15) 여기에서 말하는 젠더적 차이는 남녀의 성별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인간에게 오랫동안 강요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것이다. 문화적으로 관습화된 원형적 상정을 말하며, 여성과 남성이 생각하는 모성, 여성과 남성이 생각하는 부성에 가까운 의미라고 할 수 있다.

16) 하은하(2012), 위의 논문, 286쪽.

는 갈등과 같다. 여기에서 자녀의 입장을 거세 공포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세계를 위협하는 새로운 존재(혹은 가치)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에서 비롯된 두려움과 경계심에 해당한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바람직한 아버지상으로 “자녀에게 도덕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¹⁷⁾ 엄격한 아버지를 전형적인 모범으로 여겨왔고, 문학작품에서는 강력한 초자아가 엄격한 아버지로 형상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원형적인 이미지 역시 아버지 세계에 도발하고 위협하는 자녀 세대에 대한 경계심과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이 설화들에서는 나의 세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녀에 대한 경계심과 공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아버지로서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가장 나약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어려움은 또 다른 문제이다. 여성의 입장에서 ‘자식이 원수’란, 자신의 과오(過誤)와 관련된다. 원수자식 복수담에서 <별레를 함부로 죽인 탓으로 아들 죽게 한 부인>과 <구렁이의 보복> 등이 그러하다. 원수자식과의 과거 인연은 나의 지난날의 잘못에 해당하고 그 죄는 자식이 받는다는 서사적 논리인데, 그것은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존재했던 부모의 삶이 곧 자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통념과도 관련된다.¹⁸⁾

그리고 이는 출산과 양육 문제에 있어서 여성들의 부담과 죄의식을 반영한다. 여성들은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운한 사건들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거나, 자신들의 과거 행동이 미친 영향력으로 오인하고 과

17) 김영철·양진희, 슈퍼맨: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 상, 『아시아교육연구』 15-4, 서울대 교육연구소, 2014, 84쪽.

18) <일찍 죽어 원수 깊은 자식> 또한 이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나, 이 텍스트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엉켜버린 사건에서 이면에 담긴 진짜 원인을 찾아내는 이인(강감찬)의 행보를 더욱 드러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서 젠더적 특성을 드러내는 사안에서는 논의하기 어려웠다.

도한 죄의식을 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자녀들의 건강이나 성격적 특징에 대해서나 자녀의 어긋난 행보에 대해서도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자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특성은 작품 속에서 반영되어, 자식에게 벌어지는 불운한 일들을 오롯이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는 여성들의 특성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작품 안에서는 ‘어머니’들이 그 고통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애착과 집착에 빠져들며 고통을 감수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이를 어머니의 서사로서 보자면, 이 이야기들의 핵심 갈등은 자녀의 운명을 곧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모성적 투사(maternal projection)에 기반한 과잉동일시(overidentification)”¹⁹⁾라고 할 수 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모성적 동일시란 부모가 자신의 부족한 자존감을 자식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 회복하려고 하거나, 부모가 자식을 동일시 대상으로 삼아 자식을 온전히 자신의 소유라고 인지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가령, 가부장적인 공간에서 아들을 꼭 낳아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으려는 노력이나, 자식의 훌륭한 성장으로 자신의 지난날의 고생을 보상받으려는 심리 등이 이에 해당하고, 한국사회에 자주 일어나는 ‘자녀 살해’ 문제가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머니의 과잉동일시에 반해 적대감과 복수심을 드러내는 자녀의 모습을 대비시키며, 어머니의 과잉된 동일시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자식이 원수의 형상으로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들의 죽음에 통곡하거나, ‘아들아’라고 부르며 그 애착을 끊어내지 못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에서 대비하여 너무도 냉혹한 자녀들의 적대감임을 드러내고 있어 그 비극성을 더하고 있기 때문이다.

19) 박승민, Mahler의 분리-개별화 개념과 Chodorow의 이중적 동일시 개념을 통해 본 모성의 심리적 발달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 상담학적 함의,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8-2, 한국기독교상담학회, 2017, 99쪽.

그리고 이러한 젠더적 차이는 서사의 논리뿐만 아니라, 작품 속 부모의 역할에서도 역력하게 드러난다.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와 <낮에 찢려 죽고 자식으로 태어난 구렁이>에서는 대체로 사건의 주체는 ‘아버지’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벌레를 함부로 죽인 탓으로 아들 죽게 한 부인>과 <구렁이의 보복>에서는 ‘어머니’로 설정되어 있다.

또, 이 이야기를 구연했던 전승주체들의 성별도 이러한 젠더적 차이와 연관하다고 할 수 있다.

대분류	소분류	작품	화자
복수담	원수자식이 일찍 죽어 복수하는 이야기	<벌레를 함부로 죽인 탓으로 아들 죽게 한 부인>(1편)	여성
		<일찍 죽어 원수 깊은 자식>(4편)	남성
	원수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야기	<구렁이의 보복>(2편)	여성, 남성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8편)	남성
퇴치담	이인이 짐승원귀의 정체를 알려주고 퇴치해주는 이야기	<낮에 찢려 죽고 자식으로 태어난 구렁이>(2편) (허미수 이야기 포함)	남성
	부모가 먼저 위험을 감지하고 도망치고 동물보은으로 구원되는 이야기	<커서도 어머니 젖 빠는 아들>(6편)	여성 4 남성 2

위 표에서 보듯이 아버지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야기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와 <낮에 찢려 죽고 자식으로 태어난 구렁이>의 전승주체들은 모두 남성이다. 이는 허적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 개입된 이야기에 대한 흥미가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더욱 컸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더불어 이인의 등장으로 원수자식의 실체가 탄로나면서 긴박함을 주는 이야기는 대체로 남성 화자들에게서 구연되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다. 하지만 원수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경계심과 공포가 남성 화자들이 더욱 몰입하고 공감하기 쉬운 서사라는 점도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다.

그리고 어머니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야기 <벌레를 함부로 죽인 탓으로 아들 죽게 한 부인>과 <구렁이의 보복>의 구연자들은 대체로 여성이다. 그런데 <구렁이의 보복>에서 2편 중 1편은 남성 화자가 구연하고 있는데, 이는 남성 입장에서 어머니의 모성에 대한 관념을 드러낸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자료의 남성 화자는 이야기 말미에 “여자들이 아무데나 가 소변을 볼 기 아니라.”²⁰⁾고 해석을 덧붙이는데, 이야기의 비극을 어머니의 책임으로 여기는 발언을 하기 때문이다. 남성화자가 구연한 이야기 이면서도, 어머니의 운명을 자녀의 운명과 직결하여 해석하는 과잉동일시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원한 갚으려 태어난 자식’ 이야기들에 드러난 젠더적 특성을 정리하면, 가장 귀중한 존재로 둔갑한 원수를 어서 빨리 알아보라는 경계의 서사는 아버지들의 고민을 대변하고, 자신의 과오가 결국 자식의 불행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곧 나의 큰 고통이라는 죄의식의 서사는 어머니들의 고민을 대변하는 서사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의 젠더적 차이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적 권위주의와 모성 억압과 관련된 사회구조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들에서 보여주는 부모의 문제는 이 시대의 어른들도 공감할 수 있는 원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 사회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강요했던 책임과 의무들, 즉 양육자에 대한 억압들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아버지들의 고민을 담은 ‘경계의 서사’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속 ‘아버지’들의 고민들이다. 그러한 문화권 안에서 남성은 가문의 중심 혹은 가문의 운명으로 상징되는데, 아버지의 역할은 자식보다는 가문과 가정 전체로 확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자녀에게

20) 우두남(남), 상북면 설화 14 <여자 오줌을 맞고 득전을 못한 구렁이>, 『한국구비문학대계』 8-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579쪽.

도덕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²¹⁾ 엄격한 아버지를 전형적인 모범으로 여긴 만큼 가정에서의 아버지는 하나의 강력한 법칙으로 존재하는 것이 관습화되어 있었다. 그 안에서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애착보다는 가문과 가정을 위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의 윤리적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아버지의 역할 및 의무와 관련하여, ‘자식 살해 모티브’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자식 살해 모티브’는 많은 신화나 설화에서도 등장하는데, 이때는 주로 아버지가 자신의 세계 혹은 권위를 이어가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로 형상화되어 있다. 허미수 이야기들에서도 ‘자식 살해 모티브’는 우리 가문을 위한 길로서 그 정당성이 세워지고 있으며, 아버지는 가부장과 한 아들의 아버지 역할 사이에서 고민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반역자가 될 아들은 제 손으로 죽여야 한다는 논리’, 이에 대한 허적 아버지의 갈등 및 고민은 한 가문의 가부장 의무와 작은 아기의 아버지로서 인간적 고뇌가 충돌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아들마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강한 경계심은 ‘남성이 가문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혹은 ‘가문의 운명은 남성의 처신에 달렸다’는 가부장제적 억압이 낳은 모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들의 고민을 담은 ‘과잉동일시’의 이야기들 역시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남성중심 가부장제가 강요한 ‘모성’ 관념과 무관하지 않다. 자녀의 건강은 어머니의 신체적 특징에 따른 것이고, 자녀의 운명은 어머니 역할에 따른 것이라는 부담과 죄의식은 여성들을 억압했고, 그 안에서 여성들은 흔히 자기혐오에 빠져왔다. 자녀의 인생 성패는 어머니의 양육에 전적으로 달려있고, 모성은 여성의 생물학적 본능과 같다고 강요해온 의식이 바로 이러한 죄의식과 자기혐오를 야기한 요인이라는

21) 김영철·양진희, 슈퍼맨: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 상, 『아시아교육연구』 15-4, 서울대 교육연구소, 2014, 84쪽.

것이다. 그래서 작품 속 어머니들은 원수자식의 위협에 방어하지 못하고 처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데, 바로 그 비극은 죄의식과 자기혐오의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 이야기들은 과잉동일시로 점철된 모성의 한계점을 그려내면서도, 이야기 속에 반영된 인간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원한 갚으려 태어난 자식’의 이야기들은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드러내면서 그 젠더적 특징도 함께 드러내고 있다. 젠더적 특징은 단순히 성역할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요구했던 사회적 억압들의 문제들도 시사하고 있었다. 이 글이 구비설화의 유형을 통해 젠더적 특징을 살펴본 것의 까닭은 바로 이러한 사회가 억압했던 젠더 문제에 대해 상세하게 살피기 위함이었다.

3. <커서도 어머니 젓 빠는 아들> 속 어머니의 탈주와 ‘혐오’ 감정

위에서는 냉정한 경계심과 과잉된 동일시의 이야기들을 살펴보았다면, 여기에서는 양 갈래의 길에서 다른 방향의 의미를 지향하는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퇴치담에 속하는 <커서도 어머니 젓 빠는 아들>이다. 이 이야기는 ‘원한 갚으려 태어난 자식’ 이야기들 중 어머니 입장의 서사로 우리 사회가 강요한 모성 관념이 지닌 한계점을 드러낸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들에서는 자녀에 대한 책임과 죄의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머니들을 그려내는 반면 <커서도 젓 빠는 아들>은 그 문제에 대해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 이 사회가 강요한 억압에 대하여 ‘탈주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 그 특별함을 드러낸다.

이 이야기의 상세한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 ① 한 여자가 시집을 가기 전에 산에 나물을 뜯으러 갔다가 꿩 한 마리가 거미집에 떨어져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여자는 거미줄을 건어 내고 꿩이 날아갈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큰 거미 한 마리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 ② 여자는 그날 바로 중매로 혼인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자가 첫날밤에 신랑과 관계를 맺자마자 거미의 혼이 들어가 아이로 화했다. 여자는 열 달 후에 남자아이를 하나 낳았다.
- ③ 이후에 남편이 죽고 여자는 아들을 혼자 키웠다.
- ④ 세월이 흘러 어느 정도 자란 아들은 산 너머에 있는 서당에 다녔는데, 어느 날 서당에 다녀오더니 여자에게 젖을 달라고 하였다. 여자는 다 커서 망측스럽게 무슨 짓이냐고 하였지만 아들이 그래도 계속 달라고 하자 젖을 주었다. 그랬더니 아들이 피까지 빨아먹는 것이었다. 여자는 젖꼭지가 너무 아파서 옷도 입지 못했다.
- ⑤ 그런데 다음날 아들이 서당에 갔다 오더니 또 젖을 달라고 하여 빨아댔다.
- ⑥ 여자는 잘못하면 죽겠다 싶어 다음날은 아들이 올 시간에 도망을 쳤다.
- ⑦ 그러다가 산길에서 상주 옷을 입은 한 남자를 만났다. 상주는 여자에게 잠시 후에 아들이 찾으러 오면 죽을지도 모르니 자기 옷의 소매자락으로 들어가라고 하였다.
- ⑧ 잠시 후에 상주는 여자의 아들이 여자를 못 봤느냐며 찾아오자 못 봤다고 하여 되돌려 보냈다.
- ⑨ 상주는 여자를 꺼내주면서 자신은 예전에 당신이 살려준 꿩인데 오늘 당신이 죽을 것 같아서 상주로 화하여 구하러 온 것이라고 하였다.
- ⑩ 그러면서 지금 집으로 돌아가면 아들이 녹여 먹으려고 할 테니 다른 길로 넘어가면 나오는 큰 마을로 들어가 밖에 나오지 말고 살라고 하였다.
- ⑪ 여자는 상주가 시키는 대로 산을 넘어가 죽지 않고 잘 살았다.²²⁾

22) 이 선본은 진능선(여, 97), 대구시 설화49 <구렁이의 원한>, 『한국구비문학대계』

이 이야기는 ‘짐승 원귀-자식으로 환생-복수’라는 기본적인 서사 틀에, 특별한 요소들이 개입된다. 그 요소들을 중심으로 설화를 살펴보면, 이 작품에 반영된 모성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 ‘짐승 원귀’가 출몰하는 전사(前事)가 원한과 보은의 관계로 뒤엉켜 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거미에게는 원한을 살 일이지만, 새에게는 구원의 행위였다. 즉 주인공의 행위를 선과 악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상대적인 문제가 개입된 것이다. 이는 자녀 문제에 있어서 ‘(여성)부모의 책임’을 단정할 수 없게 한다. 다른 죄의식의 서사에서 보인, 원수자식과의 과거 인연은 나의 지난날의 잘못에 해당하고 그 죄는 자식이 받는다는 과잉동일화 서사의 논리와는 다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퇴치담 결말에서 ‘동물보은’이라는 서사적 전개로 이어진다. 여기에서 위기에 빠진 부모를 구원하는 존재는 과거 지난날에 구원해준 동물이며, 그가 신이한 존재로 화하여 구원자 역할을 한다. 이는 허미슈와는 다른 ‘이인’의 성격을 드러내고, 그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자식의 대한 경계심과 원수자식의 정체성을 재빨리 알아내는 이인의 능력과는 다른 차원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전생화소이다. 구비설화에서의 전생 화소는 지나간 과거로만 존재하지 않고 현생의 존재적 의미를 밝히는 전사로서 기능하면서도, 현생의 인간관계 즉 인연의 어려움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전생은 “‘나’가 기억하지 못한 과거이면서도, 당시 ‘나’가 발견하지 못한 사태의 이면”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다. 주인공이 “기억의 끈을 놓고 있던 시점의 사태”라는 것이다.²³⁾ 이러한 불교적 인연론은 우

7-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210~214쪽의 구술자료이며, 그 줄거리는 『문학치료 서사사전』 추가 자료를 따랐다.

23) 다음의 연구에서는 구비설화 속 전생 화소의 의미를 “이때의 전생은 주인공이 인생을 다시 사유하게 하는 새로운 깨달음이며, 미래를 뒤바꿀 수 있는 ‘현생의 정신작용’”이라고 해석했다. (박재인, *부부갈등 설화 속 전생(前生) 화소의 역할과 문학치*

리 삶에서 벌어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에 대한 진지한 사유와 깨달음을 가능하게 한다.

이 작품의 원수자식이 출몰하는 전생의 장면 역시 그러하다. 여자에게 있어서 평을 구원하는 행위는 거미의 원한을 사는 일이 되었고 그것은 원수자식의 복수를 야기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평의 보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그 인연의 복잡함과 어려움을 보여준다. 또 위의 전생 화소의 의미로 적용해 보자면, ‘부모가 기억하지 못하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사태의 이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부모가 애써 자식을 위해 했던 일이 자식의 원한을 사는 일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다른 차원에서 자식의 부모에 대한 은혜로 이어지기도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전생 화소에 반영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는 부모의 죄 때문에 원수자식이 태어난다는 다른 작품들의 논리와는 다른 차원의 의미를 지향한다. 오히려 부모의 행동이 자식에게 어떤 의미로 수용될지 알 수 없는 묘한 인과관계와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의 어려움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즉 양육문제의 현실적 고난과 그에 대한 부모들의 고민과 맞닿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서사적 특징은 부모 자신이 먼저 문제의식을 감지한다는 점이다. 이는 정체를 알게 되는 계기가 이인의 등장으로 시작되는 다른 서사들과 차이점에 해당한다. 나이를 먹어서도 계속 젖을 빼는 자식을 보며 부모가 위협을 직접 감지한다. 자식이 어머니의 몸에 상처를 내고, 피까지 빨아먹자 어머니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재빨리 도망치는 것이다. 이것은 허미수나 다른 이야기에서 존재하는 ‘부모의 망설임’이 없는 서사적 논리를 채우는 요소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 특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료적 의미 - <전생의 인연으로 부부가 된 중과 이[蟲]와 돼지>를 중심으로 -, 『고전문학과 교육』 3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8, 204~205쪽.)

세 번째는 부모가 자녀로부터 도주하고 과거에 은혜를 입은 동물로부터 구원된다는 점이다. 이는 부모의 도주는 생존을 위한 탈주였고, 자식과의 분리가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다는 서사적 논리를 보여준다. 이러한 서사의 원리는 여성의 입장에서 자식을 바라보는 서사에서 파격적인 구조이며, ‘모성’과는 어긋나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인간사회를 지배해온 ‘모성’의 이미지를 깨뜨리면서도 이러한 파격의 서사 원리가 설득력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것이 ‘천륜’을 어기는 문제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이 작품의 ‘자녀’ 모습이 ‘혐오’라는 감정을 자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과잉동일시의 이야기와 달리 어머니가 원수자식으로부터 재빨리 도망가야 안심되는 서사이면서도, 허미수의 이야기와는 달리 과한 경계심을 합리화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여성들의 ‘모성’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숭고한 ‘모성’ 보다는 자신의 생존을 먼저 챙기는 한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고 있다. 이것이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공감의 대상이 되는 까닭은 바로 ‘혐오’라는 감정을 일으키는 원수자식이라는 정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차사본풀이>형 이야기들을 보면, 원귀가 ‘홀룡한 자식’으로 설정되어 있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애정과 집착의 정도를 드러낸다. 강진옥은 “홀룡한 인물로 태어나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한꺼번에 죽음으로써 과영선의 가슴을 고통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 복수하기 위해 자식으로 환생했다는 사실에 더 큰 고통, 원귀와 인간의 관계를 혈육으로 설정하고 있는 이유”라고 해석했다.²⁴⁾ 이는 환생 이전의 관계에 주목하여 인과응보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 형태이면서도, 자식의 고통이 곧 부모의 고통이며 그것은 부모가 잘못 살아온 탓으로 여기는 기존의 모성 관념에

24) 강진옥(1989), 위의 논문, 332쪽.

부합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 애정과 집착이 진하게 그려져 있지 않다. 오히려 양육의 고통에 더 무게감을 주고 있다. 원수자식의 정기를 타고 태어났다는 설정에서부터 ‘커서도 찢을 뺀다’는 설정에까지 그 부담감과 고통을 드러낸다. 또 이 이야기의 전승주체들은 어머니를 ‘홀로 아기를 키우는 여성’으로 소개(6편 중 2편)²⁵⁾하고 있으며, 혹은 귀하게 얻은 자식이 부모를 힘들게 한다는 설정(6편 중 4편)²⁶⁾으로 드러나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경험하는 양육의 고통을 시사한다. 그러면서 이야기 속 어머니들이 자식을 ‘혐오’의 눈길로 보고 있는 서사적 논리가 세워져 있는 것이다. 즉, 이 옛이야기에서 나타내는 부모와 자식 간에 벌어지는 깊은 갈등의 실체는 ‘양육의 고통’인 셈이다. 그리고 그것은 여성들이 모성이라는 억압에 간헐적으로 투해내는 ‘자식에 대한 혐오’ 감정을 진실 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정서적 관계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원수자식’이라는 서사적 장치는 자식에게 ‘혐오’라는 감정을 허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작품의 각편들은 원수자식의 끔찍한 형상을 상세하게 그려내는 특징이 있었다.

“하, 이 년이 참, 오늘 지 죽고 내 죽는 날인데, 이거 행방불명이라.”

25) 진능선(여, 97), 대구시 설화49 <구렁이의 원한>, 『한국구비문학대계』 7-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210~214쪽; 이선재(여, 61), 현곡면 설화86 <거미와 학>, 『한국구비문학대계』 7-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245~247쪽.

26) 최복순(남, 50), 하빈면 설화29 <아들로 환생한 거미의 복수>, 『한국구비문학대계』 7-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772~775쪽; 박분준(여, 66), 상동면 설화61 <핑의 보은>, 『한국구비문학대계』 8-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1047~1049쪽; 이광휘(남, 70), 달산면 설화6 <거미발 낚은 여인>, 『한국구비문학대계』 7-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283~284쪽; 김금안(여, 53), 옥종면 설화14 <비둘기의 보은>, 『한국구비문학대계』 8-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787~790쪽.

카메(하면서), 낫을 가 지 머리를 탁탁 치이께, 거무(거미) 새끼가 바르르 히 지그던.²⁷⁾

총을 낫는지 어쨌는지 도사가 되이 총을 낫는지 어쨌는지, 그 자식이 죽어뿌고 거무(거미)가 와글하이 헤지거든.²⁸⁾

이러한 거미 아들의 끔찍한 형상은 ‘원수자식’라는 서사적 요소로 어머니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자식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배출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장면들은 저 대상과 가까이 하면 자신에게 해가 될 거라는 가정이 깔린 ‘혐오’의 감정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그 자연스러움을 대변하고 있다. ‘거미’라는 생물에 대한 인간의 통념 역시 그와 관련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기대하고 강요했던 어머니의 역할은 ‘모성’이라는 환상이었다. 여성과 모성의 관계를 이미 자연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보고 모성을 본능으로 규정하며 여성에게 출산과 양육에 대한 희생을 강요해왔다. 현대사회에는 이에 대한 반론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새로운 시선들이 등장하는데, 여성의 신체적인 특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의미가 가변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방식의 여성주의적 입장이다. 이러한 여성으로서의 삶과 생물학적 조건 사이의 필연적 고리를 끊어내려 했던 노력들은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²⁹⁾

바로 이러한 점에서 <커서도 어머니 젖 빼는 아들> 이야기는 이 사회

27) 이선재(여, 61), 현곡면 설화86 <거미와 학>, 『한국구비문학대계』 7-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245~247쪽.

28) 박분준(여, 66), 상동면 설화61 <평의 보은>, 『한국구비문학대계』 8-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1047~1049쪽.

29) 문성훈 외, 『현대 페미니즘의 테제들』, 사월의책, 2016, 33쪽.

가 억압적으로 강요한 모성으로부터 해방을 가능하게 하는 구비설화의 세계관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천륜’이라는 윤리적 억압이 막아놓은 그 감정, 부모가 자식에게서 도망치고 싶고 양육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비취주며, ‘원수자식’라는 장치를 통해 이해가능함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양육 문제에 부담과 책임감에 얽매어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가 아닌 인간 ‘실존’으로서의 자신의 존재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이는 여성들에게 모성 억압에 의한 자기혐오에서 벗어나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며, 남성 중심 사회가 만들어낸 모성 관념의 해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가 과거로부터 여성들의 입에서 전승된 구비설화에 존재한다는 점이 특별하며, 인간의 자연성을 억압해온 문명의 틀로서의 ‘모성 억압’을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게 하는 성찰적 시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특히 이 이야기의 결말인 어머니의 도주는 양육에 대한 회피라기보다 ‘억압된 모성으로부터의 탈주’라고 보아야 한다. 거미 아들은 어머니의 도움 없이 생존할 수 없는 영유아가 아니며, 어머니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의 희생을 강요하는 위협한 존재이다. 그는 부모에 대한 적대감을 가진 자녀 혹은 성인이 되어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어머니의 도주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가 억압에서 벗어나는 생존의 길이며, 현실적으로는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깊이의 문제들에 대해서 오롯이 혼자서 감당하려는 왜곡된 모성 문제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모성 억압에 대하여 탈주하는 서사의 길로, 이는 가령 죄의식과 자기혐오에서 벗어나 주위에 도움을 청하거나 부당한 자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용기는 자녀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과 애착으로부터 건강한 분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종합하면 이 이야기는 출산과 양육 문제에 있어서 흔히 자기혐오에 빠지는 사람들, 자식에 대해 혐오를 느끼지만 죄의식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치유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서사와 감정의 관계를 논하자면 구전설화의 역할은 바로 이러한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감정은 “맥락적 상황을 평가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정신 작용”이며, 감정을 “성공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신이 느낀 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때 그 감정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정 치유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대면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한다.³⁰⁾

그렇다면 우리가 구전설화를 통해 직면한 비는 문명사회가 허용하지 않는 감정들을 노골적으로 그려내면서 우리를 죄의식이라는 지옥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아닐까? 이강욱은 송광사의 현봉스님에게서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千手千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들었다고 하였다. 그 형상은 바로 우리 자신의 눈과 손, 그것도 하루 동안에도 달라지는 우리의 눈과 손이라고 했다. 위로와 구원을 받아야 할 중생을 그와는 다른 입장에서 동정하거나 아득한 윗자리에서 내려다보며 이끄는 것이 아니라 중생과 똑같이 됴으로써 중생을 위로하고 구원한다는 깊은 뜻이라는 것이다.³¹⁾ 바로 이 설화가 내보인 모성의 인간적인 면모와 혐오라는 낯 것의 감정이 그러한 차원의 위안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커서도 어머니 젖 빠는 아들>은 자식에 대한 ‘혐오’라는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고 발견되는지 그 서사적 과정을 인도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으며, 감정 치유의 목적으로 이 이야기의 쓰임새를 가늠해 볼 수 있다.

30) 김진영, 연극치료에서 다루는 ‘감정’에 관한 신경과학적 고찰, 『예술교육연구』 16-4, 한국예술교육학회, 2018, 256쪽. 253~264쪽.

31) 이강욱, 『깨어남의 시간들』, 돌베개, 2019, 48~49쪽.

최근 혐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감정이 지닌 폭력성과 정치성의 문제들을 깨닫게 하였다. 그렇게 혐오의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 볼 필요성이 인식되는 가운데, 이 글은 누군가를 혐오한다는 문제에 있어서 어느 영역에서는 허용되고 어느 영역에서는 억압되어온 문명의 인위성을 성찰한다는 목적을 지닌다. 혐오의 감정은 위험을 감지하며 자신으로부터 밀쳐내는 원초적인 감정이며, 인간사회에서 무조건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악(惡)이 아니고 특정 대상으로만 향하게끔 교육되거나 영향받아온 바가 문제라고 전제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감정은 곧 인류가 억압해온 감정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연구가 문명이 윤리라는 이름으로 억압해온 ‘자식에 대한 혐오’라는 감정을 고찰하였다면, 향후의 과제는 이 ‘자녀에 대한 혐오’라는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가의 문제가 남았으며 그에 적실한 구비설화의 탐색과 감정 치유의 논의가 더욱 심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4. 결론

이 글은 ‘원한 갚으려 태어난 자식’ 이야기들에 드러난 부모의 두려움과 고민들을 살펴보면 그 젠더적 특징과 함께 각 부모 역할에 대한 억압 문제를 고찰하였다. 먼저 이야기들은 복수담과 퇴치담으로 구분되고, 그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입장을 각각 대변하면서 젠더적 차이를 드러내었다. 허미수 이야기들은 자녀에게 아버지 세계의 절대적이 기준을 제시하는 엄격한 부성을 드러내고, ‘자식 살해 모티브’를 통해서 가문과 자신을 보전하려는 나약한 부성의 원형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벌레를 함부로 죽인 탓으로 아들 죽게 한 부인>과 <구렁이의 보복> 등

은 출산과 양육 문제에 있어서 어머니들이 죄의식과 자기혐오에 쉽게 빠지는 문제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모성적 투사에 기반한 과잉동일시’에 해당하였다.

그런데 이 문제들은 다만 인물들의 성격적 특질에서 야기된 것이라기 보다는 이 사회가 오랫동안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강요했던 의무와 역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문의 운명은 가부장의 처신에 달려 있다’ 혹은 ‘자녀의 운명은 어머니의 희생에 달려 있다’ 등의 사회적 억압이 낳은 고통과 고통들이었다. 그래서 작품들에서는 엄격한 가부장의 역할과 한 아기의 아버지의 애착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으로, 혹은 원수자식이 벌인 복수를 경험하면서도 자식에 대한 집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머니들의 비극을 보여주며 ‘억압받는 부모들’의 모습을 처절하게 그려내고 있었다. 이러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통은 성차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강요했던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에 대한 억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젠더적 차이는 서사적 요소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역할이나 구전설화의 전승주체 성별과도 관련되어 있어 그 현실적 의미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3장에서는 우리 사회가 억압한 부모들의 고통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제공하는 서사로 <커서도 어머니 젓 빼는 아들>을 살펴보았다. 이 이야기는 이 사회가 강요한 억압에 대하여 ‘탈주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숭고한 어머니의 자비와 희생을 강요했던 기존의 ‘모성’의 문제에 집중하면서도, ‘원수자식’이라는 문학적 장치를 통해 인간의 원초적 감정과 그 자연성의 해방구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식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허용하는 서사적 맥락과 다양한 장치들로 가능하였다. 이는 억압받는 부모들의 고통에 대항하여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허용한다는 차원에서 서사를 통한 감정 치유의 힘을 확인하게 하는 지점이었다.

그리고 이야기의 결말인 어머니의 도주는 양육에 대한 회피라기보다

‘억압된 모성으로부터의 탈주’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죄의식과 자기혐오에서 벗어나 모성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용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용기는 자녀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과 애착으로부터 건강한 분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원한 갚으려 태어난 자식’ 이야기들은 그 동안 우리의 삶을 억압했던 문명의 틀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인간의 자연성 회복을 꿈꾸는 문학적 상상력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였다.

참고문헌

1. 자료

- 조희웅 외, 『한국구비문학대계』 1-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1~598쪽.
김선풍 외, 『한국구비문학대계』 2-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1~500쪽.
김선풍 외, 『한국구비문학대계』 2-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1~500쪽.
김영진 외, 『한국구비문학대계』 3-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1~500쪽.
최래옥 외, 『한국구비문학대계』 5-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1~884쪽.
박순호 외, 『한국구비문학대계』 5-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1~798쪽.
박순호 외, 『한국구비문학대계』 5-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1~884쪽.
지춘상 외, 『한국구비문학대계』 6-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1~746쪽.
이현주 외, 『한국구비문학대계』 6-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1~746쪽.
최래옥 외, 『한국구비문학대계』 6-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1~678쪽.
최덕원 외, 『한국구비문학대계』 6-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1~678쪽.
조동일 외, 『한국구비문학대계』 7-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1~644쪽.
조동일 외, 『한국구비문학대계』 7-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1~644쪽.
조동일 외, 『한국구비문학대계』 7-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1~358쪽.
최정여 외, 『한국구비문학대계』 7-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1~1278쪽.
최정여 외, 『한국구비문학대계』 7-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1~1278쪽.
김승찬 외, 『한국구비문학대계』 8-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1~1278쪽.
정상박 외, 『한국구비문학대계』 8-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1~1278쪽.
김승찬 외, 『한국구비문학대계』 8-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1~1278쪽.
정운채 외, 『문학치료 서사사전』 1·2·3, 도서출판 문학과 치료, 2009, 1~3778쪽.

2. 학술논문과 저서

- 강진옥, 「변신설화에 나타난 세계인식양상(1)」, 『이화어문논집』 10, 이화어문학회, 1989, 327~349쪽.
강진옥, 「변신설화에서의 ‘정체확인’과 그 의미」, 『진단학보』 73, 진단학회, 1992, 165~185쪽.
김영철·양진희, 「슈퍼맨: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 상」, 『아시아교육연구』 15-4, 서울대 교육연구소, 2014, 81~107쪽.

- 김진영, 「연극치료에서 다루는 ‘감정’에 관한 신경과학적 고찰」, 『예술교육연구』 16-4, 한국예술교육학회, 2018, 256쪽. 253~264쪽.
- 문성훈 외, 『현대 페미니즘의 테제들』, 사월의책, 2016, 1~287쪽.
- 박승민, 「Mahler의 분리-개별화 개념과 Chodorow의 이중적 동일시 개념을 통해 본 모성의 심리적 발달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 상담학적 함의」,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8-2, 한국기독교상담학회, 2017, 87~117쪽.
- 박재인, 「부부갈등 설화 속 전생(前生) 화소의 역할과 문학치료적 의미 - <전생의 인연으로 부부가 된 중과 이[蠶]와 돼지>를 중심으로 -」, 『고전문학과 교육』 3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8, 185~215쪽.
- 신동훈, 「구술소통능력과 구비문학 : 설화의 인지체계와 의미구조를 중심으로」, 『화법연구』 33, 한국화법학회, 2016, 59~92쪽.
- 이강옥, 『깨어남의 시간들』, 돌베개, 2019, 1~385쪽.
- 하은하, 「원수가 자식이 된 이야기의 이본양상과 문학치료적 의미」, 『문학치료연구』 3, 한국문학치료학회, 2005, 111~136쪽.
- 하은하,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의 인물성격>과 편집증적 부모서사」, 『한국고전연구』 2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31~61쪽.
- 하은하, 「원한 갚으려 태어난 자식 이야기에 나타난 부모의 태도와 그 의미」, 『문학치료연구』 23, 한국문학치료학회, 2012, 258~295쪽.

ABSTRACT

The Problems of Oppression and Escape of Parental Roles in Stories of
“The Enemy Born As My Child”

Park, Jai-in

This article looked at the meaning of gender in the stories of “The Enemy Born As My Child”, and discussed excessive alertness and overidentification reflected in the narrative flow. It was embodied in the Oral Folktale with vigilance, fear, and overidentification of the child, and such the meaning of gender was related to the role of the parent in the work or the sex of the subject. These issues concretely reveal the concerns and fears of dealing with children from the perspective of “parents”. And these are the responsibilities and duties that our society imposed on fathers and mothers.

And among the “The Enemy Born As My Child”, there was also a story about breaking out of the role of parents that this society demands. <Spider son who Mother’s milk sucking> shows the way of another narrative. This story is a verbal story that considers motherhood as a woman’s instinct and examines the problem of Oppressed Motherhood, which forced the mercy and sacrifice of a noble mother, and allows the Hate Emotion of children. Through the literary device of “The Enemy Born As My Child”, we were able to explore the primitive emotions of human beings and the liberation of its natural nature, which hell of us as a guilty guilt by expressing the primal emotions of human existence that civilized society does not allow. It can be said that it is the literary imagination of the oral story that leads to escape from.

Key Words Oral Folktales “The Enemy Born As A Child”, Oral Folktale <Spider son who Mother’s milk sucking>, Meaning of Gender in Oral Folktales, Oppressed Motherhood, Hate to Children, Emotional healing

논문투고일	: 2020.07.22
심사완료일	: 2020.08.07
게재확정일	: 2020.08.12